

# D램 위축·美 특허소송... 반도체 불황 내년까지 지속

D램 가격 그나마 하락 멈춘 수준  
낸드플래시 일부 상승세로 돌아서  
반도체 업계전쟁, 국가간 분쟁 확대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도 글로벌 갈등으로 침체 위기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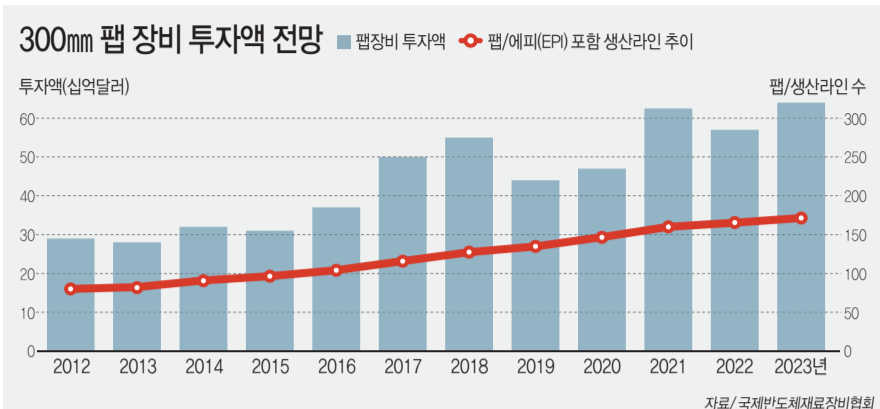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는 4일 300mm 펌 장비 투자액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펌 장비 투자액은 2019년 침체를 거쳐 2020년에 회복되기 시작하고, 2021년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예정이다.

앞서 나왔던 기대보다 한발짝 물러선 내용이다. SEMI는 올 초 세계 펌 전망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을 1년여 늦춰 본다는 얘기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해 4분기를 앞두고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D램 가격은 그나마 하락을 멈춘 수준이고, 낸드플래시는 일부 상승세로 돌아선 정도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효과도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떨어졌다. 공급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시스템 반도체 업계는 내분에 빠졌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등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정조준한 가운데, 미국 글로벌파운드리(GF)가 대만 TSMC를 특히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GF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국과 유럽의 혁신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송 목적을 설명했다.

업계는 소송이 장기화되면 IT 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중무역분쟁 지속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이은 또 다른 악재다. 반도체 산업 업황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F가 승소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미국과 유럽이 TSMC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TSMC는 AMD와 엔비디아, 퀄컴과 IBM 등 글로벌 주요 펌리스 물량을 수주하고 있다.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K 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를 통해 D램 가격 하락세가 8개월만에 멈추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1.9% 상승했다며 반도체 회복 신호가 보인다고 봤다.

서버 D램 재고도 6주 이하로 감소하고 IDC 설비투자도 늘고 있다며 수요 회복 여건도 조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아직은 업황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힘이 실린다. 업계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고 클라우드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미국 마이크론이 일본과 대만 등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중국에서도 YMTC가 64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선언하는 등으로 공급 과잉 현상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 전쟁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하는 양상도 문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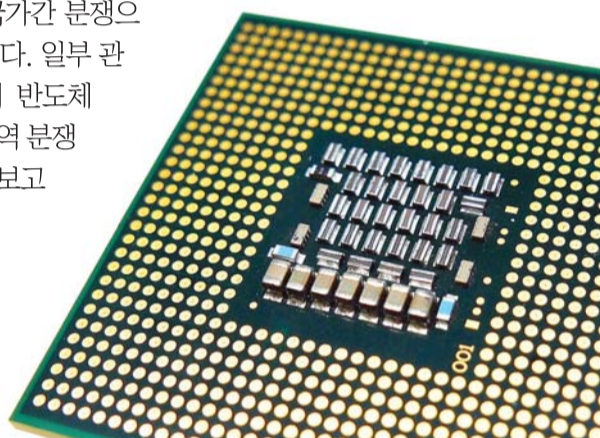
당장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GF도

TSMC에 소송을 걸면서 아시아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하기에 앞서, 미국에 무언의 지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미국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D램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근거로 들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이 자국에 악영향이라는 불멘소리가 꾸준히 나온다"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 업황 회복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삼성전자, 日서 세계최고 반도체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일본에 세계 최고 파운드리 기술력을 뽐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를 정조준한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4일 일본 도쿄 인터시티홀에서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을 열었다고 밝혔다.

파운드리사업부 정은승 사장은 물론, 이상현 마케팅팀장 상무 등이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했다. 특히 정 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 고객사와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변함없이



삼성전자 정은승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활동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에 韓 석유화학 '불똥'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달 중국산 의류 등 일부 품목에 15%의 관세를 매기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규모는 35억3천만달러(약 4조3000억원)

로 전년 동기보다 19% 이상 급감했다.

앞서 석유화학 수출 규모는 작년 11월 1년 만에 처음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를 밀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9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 미·중 무역 분쟁과 홍콩 시위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석대성 기자

## 고속버스 정기권 나온다... 교통비 부담 ↓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발표

버스, 6개 노선 월 단위 정기권  
철도, 할인상품·관광패스 출시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을 내달 출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철도 할인 상품을 출시한다.

제주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지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 소비세 75%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중교통 정액·정기권을 활성화해 원거리 통근·통학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속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이용 가능한 6개 노선(서울-천안-아산-평택-이천-여주, 대전-천안) 대상 월단위(30일) 고속버스 정기권을 다음달 신규 출시한다.

열차의 경우 수도권 4개 구간(서울-행신, 서울-광명, 용산-행신, 용산-광명)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 간 시범 운영한 'KTX 단거리 할인상품'을 연말까지 연장 판매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상품과 내국인용 관광 패스 등이 출시된다. 만 27세 이하 청년이 3·5·7일간 일반 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의 이용 연령을 12월부터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3일간 일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하나로 패스'는 10월 호남권을 시작으로 KTX까지 확대해 지역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편한다.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 한시 감면(법 통과 후 2년간)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휴가 비용을 각각 10만원, 20만원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보조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를 여행상품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촉진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국내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연가 사용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요금 경감과 여행비용 보조 목적으로 가을여행 주간과 추석 연휴 이후 한 달 동안(9월12일~10월13일)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현 5%)을 한시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해 중화권과 동남아 현지 매체를 통한 한국 관광 광고 송출을 늘리고, 한국 지방관광지에 대한 광고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기로 하고 기금 변경을 통해 총 36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3조6000억원 추가해 올해 총 120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2000억원 추가 발행하고, 추가분은 10% 특별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신규 출시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